

영국, 와인 규제 완화 조치 발표 (2024년 1월 1일 시행)



와인의 인증, 포장, 생산에 대한 다양한 규정 변경하여 와인 시장 성장 가속화 도모

2023년 10월 16일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는 영국 와인 시장의 혁신과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기존에 따르던 EU 와인 규제를 완화함. 포장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무역 마찰과 행정 부담을 간소화하는 다양한 조치가 제안됨

1. **배경** : 기후 변화에 따라 영국의 와인 및 포도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영국은 세계 3대 와인 수입국 중 하나로 와인 시장이 크게 성장 중임. 영국의 와인 산업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규정을 따르고 있었으나, 기존 EU 규정은 이러한 와인 시장의 성장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산업계로부터 개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음. 이에 환경식품농무부는 그간 유지되던 **EU 규정을 개정하고, 여러 개로 존재하던 와인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함**. 영국 정부는 와인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약 1억 8천만 파운드 이상의 이익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함

2. 주요 변경 사항

주요 규제 완화 조치

1. 수입 와인 라벨에 수입업자 이름을 표기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폐지하고, 담당 식품 사업자(Food Business Operator, FBO)만 표시하도록 함
2. 하이브리드 품종을 사용하여 생산된 와인에 대해 원산지 지정 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 및 지리적 표시 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s, PGI)* 부착을 위한 옵션을 제공함

(*) EU와 영국에서 사용되며, 현지 생산자의 인정된 노하우 및 현지 재료를 사용하여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정하는 것으로, 지역 제품의 명성을 보장하고 해당 로고 부착 제품이 생산 및 원산지 조건을 준수한다는 것을 나타냄 (자세한 내용은 [관련 EU 홈페이지](#) 참고)

[PDO 및 PGI 로고 예시]



PDO 로고



PGI 로고

3. 피케트(Piquette, 와인 찌꺼기로 제조한 저렴한 주류)의 제조와 판매를 허용함
4. 수입 와인의 블렌딩(와인 품종 혼합)이 제한 없이 합법화
5. 특정 스파클링 와인에 호일 캡과 버섯 모양의 마개를 요구하는 포장 요구 사항을 제거함

주요 규제 완화 조치

6. 원산지 보호 지정(PDO)이나 지리적 표시 보호(PGI) 상태가 없는 와인에 대해 **인증 절차 없이 빈티지와 품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
7. 병 모양에 대한 규정을 제거하여 **자유로운 병 모양 도입 가능**
8. 농축에 대한 분석 및 제어 방법을 명시하는 유지된 규정(EC) 2019/935 폐지
9. **아이스와인**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요건 규정 추가
10. 양조 관행, 프로세스 및 제한 사항의 목록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유지된 EU 법률(유지된 규정 EC 2019/934 부록 1 및 2)을 개정하고 이를 기록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 도입
11. **영국의 와인 제품 규정 개정**
 - 수입 와인이 영국에 도착한 이후, 음료에 단맛을 더하고 탄산을 첨가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와인으로 변형 가능**
 - 알코올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알코올 함량이 8.5% 미만인 음료에도 '와인'이라는 용어 사용 가능**(PDO 또는 PGI를 보유한 와인의 경우 알코올은 최소 4.5% 까지 포함 가능)
 - 알코올이 없는 와인에 대해 **'무알코올 와인'**이라는 단어를 제품에 표기하고 홍보 가능
12. **모든 와인 법률을 하나로 통합할 예정임**
13. 기타 규정(포도의 과도한 압착을 방지하며, 양조 후 찌꺼기에 최소 수준의 알코올이 잔류해야 한다는 규정/피케트 이외에 찌꺼기로 만들어지는 다른 음료의 생산 방지 규정/증류를 위해 예외적으로 와인을 강화하려는 관행 방지 규정 등)이 폐지됨

3. 시행 일정 및 적용 범위

1) 시행 일정

- **2024년 1월 1일 발효** 예정 : 상기 표에서 1~8번(8개 조치 사항)
- **2024년 7월 15일 발효** 예정 : 상기 표에서 9번, 10번(2개 조치 사항)
- 2024년 중 시행 예정 : 미완성 세부 조치를 포함하여 의회에 통합 와인 개혁 규정 제출 예정

2) 적용 대상 지역

상기 표의 **2번 조항은 영국 전역, 나머지는 잉글랜드에 적용**되며 웨일스에서 유사한 조치가 추후 도입될 예정

영국으로 주류 수출 시 도수를 기준으로 주류에 세금을 부과하는 주류 세율 시스템 확인 필요

와인 규제 완화 조치 이전에도 영국 정부는 주류의 종류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부과했던 기존의 주류 세율 시스템을 폐지하고 2023년 8월 1일부터 알코올 도수(ABV)를 기준으로 도수가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주류 세율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류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있음. 주류 품목을 영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영국의 새로운 주류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함

출처

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Consultation on smarter regulation: wine reforms Summary and Government response, 2023.10.13

Euro news, UK: Alcohol-free beverages to be labelled as 'wine' amid industry rule easing, 2023.10.19

EU,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quality schemes explained